##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 간협-치협-한의협, 인권위 결정 환영 성명
### 보건복지부에 차별 규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5월 18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도록 해 의료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특히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공청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5월 19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정·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국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정된 의료법(제80조제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때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선정됐다.

지정·평가 절차는 신청접수, 자체평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지정·평가결과 판정, 결과공표, 이의신청 및 재심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양 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 반갑다"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를 주관하는 노하우를 갖춘 정부인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는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평가를 통해 질 관리의 기초를 다지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돼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 향상과 피평가기관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의 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지정·평가특별위원회' 및 '지정·평가기준특별위원회'에서 평가절차 및 진행방법, 항목평가 및 결과판정,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 전문대 간호학과 'NCS 도입' 안해도 된다

### '학습성과기반'으로 특성화전문대학 평가받으면 돼

전문대 간호학과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유보분야이며, 특성화전문대학 평가 때문에 NCS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이는 '간호학 분야 교육과정 비교 : 학습성과 및 NCS' 주제로 열린 간호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밝힌 사실이다.

토론회는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전희경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대한간호협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주관으로 5월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과 'NCS기반 교육과정'을 양립하면서 겪는 이중부담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에 근거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인정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권장하고 있는데, 간호학과 등 의료·보건학과는 NCS 유보분야이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지표로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포함돼 있으며, 이때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예로 간호학과의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이 해당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통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박순옥)는 "특성화전문대학 평가를 위해 대학본부에서는 간호학과에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충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면서 "교육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최성부 과장은 "간호학과는 NCS 유보분야이며, 유보분야의 경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체계(현장중심 교육과정)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학 측에서 간호학과에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호학과의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여부가 특성화전문대학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백승민 팀장은 "간호학과가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특성화전문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정책용역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송경애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학 분야에서는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에 힘쓰고 있다"면서 "분석결과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개발단계는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단계가 요구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 전희경 국회의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한목소리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과 NCS기반 교육과정을 양립해 운영하는 것은 부담감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빈으로 강길부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문진국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1면서 계속〉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2008년부터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간호역사뿌리찾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간호 관련 사료와 박물관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집한 사료와 박물은 전시, 방송물 제작 및 지원, 학술포럼, 단행본 발간, 타 박물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간호역사 연구를 위해 오랜 기간 매진해오면서 한국간호역사자료집 1·2권을 집필하신 옥성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역사관 건립을 목표로 간호 관련 사료를 계속 발굴하고 탐구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3권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성득 미국 UCLA 한국기독교부교수(아시아언어문화학과 임동순임미자 석좌)는 "한국간호역사자료집 1권 발간 이후 2권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인내로 후원해준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자료수집과정을 적극 도와준 미국과 한국의 유수한 도서관, 고문서실, 연구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은 4만원에 판매된다.

구입문의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02)2260-2553.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독자주소 변경
☎ 02)2260-2571

##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의료지원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 내에 설치된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의료지원팀에 참여해 의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업무는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가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의료지원팀에는 중앙간호봉사단 대원인 간호사 1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팀을 이뤄 근무하고 있다.

특히 중앙간호봉사단 대원들은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로서 이번 의료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참여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의료지원 봉사에 참여한 강은영 수간호사(성애병원 응급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했다"면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수습에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에는 현재 3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대원으로 가입해 있다. 매월 2~3회씩 홀로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가정, 이주노동자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6월 1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 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헛,2·4층학원)
www.yulimgosi.com